K-톡신, 中 시장 정조준… 휴젤 '선도' 메디톡스·대웅 '가세'

휴젤 레티보 출시 5년차 맞아
메디톡스 뉴럭스 등 발매 예정
대웅제약 나보타 품목허가 재신청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선두 주자인 휴젤에 이어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이 중국 진출을 추진하면서 'K톡신' 3대장의 글로벌 전략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K톡신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20년 10월 중국 식품의약품관리국(NMPA)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 100유닛의 최종 승인을 획득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2021년 2월 '레티보' 50유닛을 추가 승인받았다.

올해로 중국 출시 5년차를 맞은 레티보는 현재 중국 의료성형기관 중 약 85%에 해당하는 6800여 개 기관으로 공급되고 있다. 레티보의 중국 미용 및 성형 의료 시장점유율은 15% 수준이다.

레티보 /휴젤

뉴라미스 /메디톡스

나보타 /대웅제약

이와 함께 휴젤은 2022년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등을 정식으로 선보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또 하이엔드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 바이리즌 비알 등을 전개해 고기능성 제품을 내놓고 중국 현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휴젤은 올해 상반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7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규모다. 또 상반기 보툴리눔 톡신 및 필러 수출 매출에서 아시아 지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한다.

휴젤은 중국 내 파트너사 사환제약과 협력하고 있으며 유통망 확대,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브랜드 행사를 열었다. 특히 현지 의료진을 비롯한 전문가, 중국성형협회 관계자 등과 적극 교류했다.

휴젤 지승욱 사업총괄 부사장은 "이번 행사는 실제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기획해 만리장성이 지닌 '무한'의 의미를 반영하고 레티보가 추구하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임상적 탐구 의지를 표현했다"며 는 "정품 인증 활동, 휴젤만의 학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도 중국 시장 초읽기에 나섰다.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 중국 해남 스터우 투자유한회사와 뉴라미스, 뉴럭스의 중국 수출을 위한 총판 계약을 각각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해남 스터우는 뉴럭스 중국 임상 3상과 품목허가 절차를 전담하고 있다. 오는 2028년 발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대만에서는 2020년 '뉴라미스', 2021년 '메디톡신' 등을 각각 품목허가를 획득해 시판하고 있다. 신제품인 뉴럭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임상1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 올해 안에 임상 1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도 지난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품목허가를 재신청하며 중국 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앞서 2021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7월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현지 규제기관의 검토가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회사 내부의 종합평가와 사업 개발 전략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품목허가 신청자료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거쳐 재신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상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만 뿐 아니라 가파르게 성장하는 속도에서도 시장성이 크다"며 "의약품인 만큼 안전성 입증이나 규제 준수에 따른 장벽을 넘어서면 K뷰티와 미용의료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경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종근당,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신설

아첼라 창립식… 이주희 대표 임명
비만 분야 등 혁신 파이프라인 확보

종근당은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Archela Inc)'를 자회사로 신설하고 창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명 아첼라는 시작, 근원, 원리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르케(Arche)'와 생명, 조화, 확장을 상징하는 어미 '라(-la)'를 결합해 '근원에서 피어난 생명', '근본에서 확장되는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제약기업 종근당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첼라는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형태의 전문회사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회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

20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아첼라 창립식에서 아첼라 이주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장동력이 될 혁신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CKD-508은 CETP 저해 기전을 활용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영국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미국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CKD-514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GLP-1 작용제로 비만 및 당뇨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다. CKD-513은 뇌혈관장벽(BBB) 투과가 가능한 HDAC6 저해제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후보물질이다.

신설법인 아첼라의 대표이사에는 종근당 연구소 출신의 이주희 박사가 임명됐다.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의대 삼성암연구소와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쳐 종근당에 합류했다.

아첼라 이주희 대표는 "아첼라의 창립은 종근당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종근당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하여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집' 뉴욕 셰프 맞이

난로학원 협업… 한국 전통미학 전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뉴욕 대표 셰프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한식 산업화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난로학원과 협업한 것으로 한국 전통미학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한 셰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미식 세계를 구축한 인물들이다. 뉴욕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의 박정은 대표, 멕시코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리마'의 미슐랭 오너 셰프 피델 카바예로, 프랑스와 일본 요리를 결합한 레스토랑 '유'의 오너 셰프 유 시마노, 스시 바 '나미 노리'의 공동 창립자 지한 리, 필리핀 전문 요리 '롤라스'의 오너 셰프 수잔 컵스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국 현대미술 단색화에서 영감을 얻은 설화수의 지함보 한복을 입고 북촌길을 걸으며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또 설화수 핵심 원료인 인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적 유산임과 동시에 과학적 근거를 갖춘 K뷰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유 문화와 현대적 미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려 그 의미를 더했다"며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확한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트리스 바이페닐 트라이아진' 식약처 등록

〈자외선차단 원료〉

화학적·물리적 차단 기능 동시 구현

한국콜마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차단 원료 '트리스 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을 신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원료는 단일 성분이면서도 자외선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기능을 이중으로 갖췄다. 자외선을 흡수해 열로 바꾸는 화학적 차단제와 자외선을 반사해 산란시키는 물리적 차단제의 원리를 동시 구현한다. 파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 자외선 전체를 차단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원료 개발에는 세계 최대 종합화학기업 '바스프'와의 협력이 뒷받침됐다. 바스프는 자외선 차단 원료를 공급하고, 한국콜마는 해당 성분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며 효과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콜마는 원료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브이 엑스퍼트 부스팅' 기술도 독자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자외선차단 원료가 피부에 고르게 발리도록 돕고 피부 표면에 균일한 보호막을 형성해 유효성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한국콜마는 차세대 원료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화장품 제조 및 브랜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앱티스-제이투에이치, ADC 신약개발 맞손

앱클릭·옵티플렉스 활용 공동연구

동아에스티의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 자회사 앱티스는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차세대 ADC 신약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앱티스의 항체 접합 기술 '앱클릭'과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의 약물 플랫폼 '옵티플렉스'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동연구에서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은 초고활성 세포독성 약물을 설계하고 합성하며, 앱티스는 이를 항체에 정밀하게 접합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항체 대 약물 비율을 구현한다.

양사는 세포 수준의 선택적 세포독성

지난 21일 앱티스 본사에서 김재선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대표, 한태동 앱티스 대표(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평가를 거쳐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효능과 약동학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비임상 ADC 후보물질을 선정한다. 향후 도출된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연구 진행, 임상 진입, 글로벌 기술이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